



장 경 호
한국공업화학회장
(주)이녹스 대표이사

존경하는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공업화학회 22대 회장 이녹스 장경호대표 인사 드립니다. 싱그러운 봄의 향기를 느끼던 때가 불과 엇그제 같은데 어느 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금년도 벌써 한 해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정치·경제·사회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 올해로 창립 17년차를 맞고 있는 우리 연합회의 역할과 책임도 그 만큼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해 세계에서 9번째 무역강국 대열에 합류했던 우리나라는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2014년 1조달러 아래로 내려앉고 말았으며, 2014년 3분기 이후 지난 3월까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의 터널에 갇혀 시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의 분야가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 이제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우리경제의 큰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과 기술들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후반을 주도했던 중화학공업은 바통을 IT분야에 넘겨주었고, 21세기를 주도해온 인터넷, 스마트폰 을 비롯한 IT산업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주도적인 산업과 기술은 무엇이 될까요? 또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거리에는 무인 자동화된 전기자동차가 지금의 가솔린자동차를 대신하고, IOT기술이 보편화된 초 연결사회,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의학과 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인간 평균수명을 100세까지 연장시키는 세상이 머지않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기술변화로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융합·협력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서로 힘을 합하여 미래에 요구되는 화학관련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관련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능력을 극대화 시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학계는 한계돌파형 기초연구 및 연구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출연연구기관은 10년 이후 시장에서 요구되는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연구에 매진하며,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최근 많은 학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글로벌경쟁의 가속화와 함께 기술융합화, 기술과 제품수명의 단축과 같은 환경 변화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 한계를 느끼고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은 산학연 협력에서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여전히 미흡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산·학·연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 아닐까요? 우리 연합회가 열린 마음으로 한발 먼저 기업에 다가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학계나 출연연구소에서 수행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와 기술을 홍보하는 일과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학·연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공유하여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혁신 주체들간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감은 물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이 실질적인 기술 혁신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을 하나의 산업기술 문화로 정착 및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학연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협력을 잘하는 모범적이고 차별화된 한국화학관련 학회연합회” 우리 모두가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참여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 6월

한국공업화학회장 (주)이녹스 대표이사 **장 경 호**